

사람이 백년을 산다 해도, 상되고 거짓되어 바른 지혜 없으면, 일심으로 바른 지혜 배워 익히는 이별의 사는 하루만도 못하리라. (法句經·술천품 136절)

발행인: 김영로, 편집인: 김영로, 발행처: 동국대학교,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 전화: 267-8577, FAX: (02)279-1270,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전화: 41-4132

민주 총장 선출 당위성 재인식

직원·학생 파행 행정 책임 총장 퇴진요구 교수회, 총장선거 구체적 방안 모색

총장선거가 지나고 있으나 아직 사리사욕 정권이 가시화되지 않은 채 서울-경주 교수회는 오는 10월 중 총장후보선출을 준비하고 있고, 직원노조는 부당 인사 책임을 물어 총장사퇴 퇴진을 들고 나섰다. 또한 학생회에서는 학원자주추진을 위한 재단총장 퇴진을 주장하고 나서 학내진동이 점점 확대, 표면화되고 있다. 교수회는 잠정적으로 총장선거를 두달남짓 남겨 놓은 상태에서 아직 뚜렷한 입장 표명 및 활동이 없는 상태로 임원선거에 관한 보고와 총장선거 시기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결 오는 6일과 8일 서울-경주 대의원회를 통해 갖고 구체적인 실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교수회는 지난달 21일 서울캠퍼스 총회, 지난 29일엔 경주캠퍼스 총회를 열고 회칙개정 및 총장직무대리를 선출하는 등 부산한 움직임을 보여왔다.

노조 서울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문옥례)는 지난달 17일 있었던 직원인사 이동이 상식을 벗어난 불법임을 주장하며 총장사퇴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직원노조는 지난 3일 오후 5시 중앙강당에서 비상총회를 갖고 오는(5일)까지 부당인사조치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6일 이사장에게 2백1명의 직원사퇴서를 제출하고 申國柱총장사퇴 퇴진투쟁을 벌여나갈 것을 결의했다. 노조에서는 직원인사 이동이 이뤄진 지난달 17일부터 총장 및 총무처장 면담을 통해 스무 부서에서의 행정리인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 △학과-노조 단체협약이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3-6개월도 안되어 보직변경한 점 등을 들어 이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비상총회를 열고 항구대륙을 마련했다.

학생회 '민주적 교수중심'을 지향하는 학생회(회장=김영수)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도서관에서 학생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중앙교과위원장 장정현(교육4)군의 사회로 불교, 일문학과 총회보고, 인철과 무능교수퇴진보고, 직원노조 현황과 연대지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학생회장 권오철(화학4)군은 이날 "파행적 학사업무 책임지고 재단총장은 퇴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과에서의 불협을 극대화하자"고 밝히는 등 2학기 학자부 기조에 관한 발표를 했다. 이어 불교학과와 일문과의 점거농성상황 및 교과위투쟁과정이 발표됐다. 이날 무능교수퇴진과 관련, 인철과 학생회장 박용수(인철3)군은 인철과 인적구조혁신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장기부 및 무능교수 퇴진본부설치, 학



직원노조 1백50여명은 부당인사 철회를 요구하며 지난달 21일 본관앞에서 사직서 제출 결의대회를 가졌다.

총장선거등 대의원회 일임

경주 교수회 일부회칙 개정안 의결

경주캠퍼스교수회(회장=김영수) 총회가 지난달 29일 재직교수 1백4명중 과반수가 약간 넘는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철관(소강당)에서 열려 총장선거를 오는 10월말까지 실시기로 하는 등 주요쟁점 사항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서울캠퍼스 교수회 총회에서 결의된 안건 내용도 스제 11조(회의)-총회와 합대의원회를 캠퍼스별로 개최한다 스제 14조(임원)의 선출-캠퍼스별로 교수회회장을 선출한후 대의원회가 총회장을 선출한다 스제 22조(권한)-수정-추가된 조문에 대한 조항은 대의원회의 합의 의결한다 등이었다. 이날 총회자리에서는 입학전행료 과다지출과 관련, 裴昌淳

그러나 이번 교수회칙 개정안은 회칙 제37조 규정개정에 관한 규정의 위헌한 것으로 유효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이번 서울-경주캠퍼스 총회에서 개정된 안건 내용도 스제 11조(회의)-총회와 합대의원회를 캠퍼스별로 개최한다 스제 14조(임원)의 선출-캠퍼스별로 교수회회장을 선출한후 대의원회가 총회장을 선출한다 스제 22조(권한)-수정-추가된 조문에 대한 조항은 대의원회의 합의 의결한다 등이었다. 이날 총회자리에서는 입학전행료 과다지출과 관련, 裴昌淳

사무처장이 정경위원회의 내용을 보고 했으며, 학사보고도 가졌다. 경명대학원 학술세미나 레전스부르크대학 교수 초빙 (5일) 오전 10시 동국관(L101)에서 본교 자체결원대학인 독일 레전스부르크대학의 Hans Schwarz교수를 특별 초빙해 갖는 '학문연구의 윤리적 전제'에 관한 이날 강연은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을 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서울구치소사건 장기화

양심수 탄압 해제 및 석방 이뤄져야

지난달 27일 서울구치소에서 발생한 재소자들과 구치소속의 총들사건이 장기화 되고 있다. 김용기(33·서울대수학과) 씨등 3명이 도사직임제한 철폐를 요구하며 교무과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나오던중 김용성(33·삼민동맹관원자)씨가 교도관들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면서 일어난 이번 사건은 이후 교도관들의 폭행, 반성문 강요등으로 많은 재소자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반미구국사건'으로 수감중인 본교생 윤남진(경협85)이구원(국문87)군도 징벌방에

감금당했으며 이번 사태에 항의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농성중인 어머니들에게까지 "이탈행위를 낳은 X"라는 욕설까지 퍼붓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가협등 사회단체와 재소자 가족, 학생들은 징벌방에, 부상자 즉각치료, 면회허용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자 구치소측에선 일단 징벌방제조치만을 내린상태다. 그러나 이들 재소자들은 다른 요구조건들이 관철될 때까지 단행투쟁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 투쟁중이다.

▲金惠中(이과대 통계학)=지난 8월15일부터 오는 91년 2월29일까지 미국 스탠포드대학으로 학술연구차 출국. **▲韓龍(사범대 국어교육학)**=지난 1일부터 오는 91년 11월15일까지 프랑스 파리 제1대학에 연구차 출국. **▲朴明姬(사범대 가정교육학)**=지난 8월20일부터 오는 91년 7월30일까지 미국 인디애나 주립대 초빙교수로 출국. **▲裴昌淳(인문대 철학)**=90학년도 문교부 극비 해외 파견교수로 독일 마인츠 대학에 오는 9월부터 91년 8월까지 1년간 체류예정.

얼마전에 공중전화기 앞에서 통화를 할때 끝내라고 계속했다는 자극적 사소한 이유로 살인하는 일이 벌어졌다. 20대의 청년이 50대의 어른에게 폭행을 가했다. 한 중학생이 밤에 잠을 자고있을 때 50대의 부인에게 물건을 훔치자, 그 부인이 부끄러워서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계산으로 性的인 暴行을 가하는 일도 벌어졌다. 사람들은 요즘의 世態를 보고 人倫道德이나 정상적인 사고가 崩壞된 末世라고 慨歎한다. 수천년 전에 이미 "말세"라는 말이 사용되어 온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옮겨가는 "末期的현상"이라는 말을

보리수 머리에 떠올린다. 이 말세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이 현상의 震源地가 도대체 어디인가?"라는 물음을 갖게 된다. 어떤 이는 訪北이 실현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떤 공공이 속의 정치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수만명의 노인들이 고향방문의 기대에 부풀어 방북을 신성하게 하는 것과 같은 國民愚弄行爲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정치인들에게 돌린다. 다른 이는 남북통일을 의치면서도 영호남의 지역감정을 없애기는 커녕 오히려 부추기고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野望을 성취하려는 自稱 正義의 騎士들에게 돌리기도 한다. 또 학계,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돌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정치적 야망을 가진 군인들에게 돌리는 이도 있고 심지어는 역사에 돌리는 이도 있다. 옛 전사들의 시에 "波自 動 萬波隨"라는 말이 있다. 한 파도가 움직이니 그에 따라 만개의 파도가 움직이게 된다는 말이다. 말세현상이란 만가지 파도를 일으키게 한 최초의 한 파도를 바로 나를 가리킨다. 내가 품은 한 욕심과 내가 벌한 호르타린 행동이 바로 만가지 파도의 기원이 된다. "나 자신이 바로 최초의 한 파도다"라는 것이 불교의 기본적 가르침이다. 釋之 鳴

부속 경주병원 개원차질

의료원 예산확보-병원운영체제논의

본교 의과대학 부속 경주병원의 예산확보 및 개원차질을 안건으로 한 '동국의료원 운영위원회'가 오는 7일 오후 2시 申國柱총장, 吳國樞부총장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관(4층)학처장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운영위원회에서는 건축공사 90년 상반기 28억6천만 원, 비품구입비 6억여원의 예산확보 방안모색 및 의료진 초빙과 의료기기 설치등이 논의된다. 지난 88년 10월 착공한 경주병원엔 총4만5천평의 부지에 병원 5천6백평, 강의실 1천7백평 규모로 오는 11월 개원 예정이었으나 의과대학에 구입

및 시험가동등을 감안 한다면 내년3월이후 개원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주병원의 개원차질은 본교 3년생의 임상실습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본교 포항병원에서만 이루어지게 되어 임상교수의 수급 및 강의공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동일법인 한가위 북한불교 순례단"(대변인=延基榮·법학)이 오는 10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북한의 불적담사를 위해 국토통일원에 북한주민접속승인 신청서를 지난달 31일 접수시켰다. 한국교수불자연합회, 대한불교청정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등 3개 불교단체들이 결성한 이번 순례단은 순례기간동안 평양사찰방문과 묘향산 보현사, 금강산 유점사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수습기자 추가 모집

大學言論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本社에서는 어둡고 혼돈의 時代를 예리한 眼光으로 파헤쳐 나갈 意識있는 男女수습기자들을 모집합니다. ①모집인원:서울 및 경주캠퍼스 ○○명 ②응시자격:1.대학 2.대학생 ③모집분야:일반 및 사진기자 ④제출서류:본사 소정양식 1통 명함판사진 1매(지침서는 본사 총무부에서 배부함) ⑤원서접수:서울 9월20일 오후 4시까지 경주 9월13일 오후 4시까지 ⑥시험일자:서울 9월20일 오후 5시 경주 9월13일 오후 5시 ⑦시험과목:1차 필기-국어·상식·작문 2차 면접-1차합격자에 한함 ⑧원서제출처:본사 총무부 ⑨시험장소:추후공고 ※학생기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급료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동대신문사

나래기획 주최: 나래기획 주관: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회, 전국교육대학신문기자연합회, 협찬: 나래기획·중앙일보·코리안투데이·한대·사시지전국교수

"대학인을 향한 나래의 첫걸음입니다."

무더웠던 8월 초 그 뜨거운 한여름의 열기 우리의 열기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90년 하계 전국대학신문 사진기자연수회' 2박 3일간 50여 대학, 90여명 참가 매우 만족했다는 평풍 대학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제 나래기획은 대학문화를 향하여 소리없는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녀의 아쉬움은 새로운 기약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의 아쉬움과 서운함도 또다른 기적으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미진함과 부족함도 마나면 길을 헤쳐가기 위한 새로운 약속입니다.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박학한 일경속에서도 앞날 성과를 맺고자 함께 노력해주신 대학신문 사진기자 여러분에게 이번 행사가 더욱 좋은 대학신문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족한 시간을 사진에 대한 애정으로 매꾸어주신 감사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마련에 협조해주신 협찬사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믿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서울 중구 필동 34-5 (주)나래기획 광고기획부 (전화: 779-2355)

나래기획에서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보도사진의 사회적 역할과 보도사진인의 자제, 대학보도사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Documentary와 위용사진 등을 정리하여 교재를 제작하였습니다. 대학신문사 및 일반사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면 교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학생이지 결집시킬 위상정립 절실

분단조국 46년 통일진군 46년 그동안 남한사회변혁의 선봉부대로 대변혁의 시기에 있어 가장 열심히, 가장 선도적으로 싸워왔던 청년학생. 청년학생의 조직적 무기로서 기능해온 학생회는 80년대에 들어와 많은 변화를 겪었다. 우리학교내에서도 학도호국단의 폐지와 총학생회의 부활이후 많은 변화를 해왔다. 이번 시리즈는 그러한 변화속에서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해 논의되는 성과물을 정리하고 90년대의 자주·민주·통일을 열어야 할 올바른 학생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그나마 도움을 줄수 있게 하도록 기획되었다. 학생회는 소수 선진학생만의 것도 대중들만의 것도 아니다. 올바른 조화와 전망을 위해 학생회간부는 물론 일반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도록 노력할 것이며, 학생들의 많은 도움받을 부탁드린다.

진단과 모색 90년대 학생회

실제로 22대 총학생회가 출범한 이후 선거유류증과 학자투의 실패로 인해 지도간부사회의 불화가 노골화 되어 총학생회와 각급 단위가 통일되지 못하는 학생회 최대의 위기인 운영위의 결구이 5·18광주총회를 계기로 현실화 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학우대중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를 조직화 해내는 부문 계열조직도 발전방향을 상실하고 답보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2학기 개강을 기점으로 총학생회위원의 평가와 계획이 제출되고 진군기간을 통해 총체화 시기라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학기 사업평가에서 중실적으로 평가된 단결투쟁의 문제는 그 문제제기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을 예상케한다.

그러므로 다시 학생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며, 이를 위해 남한사회의 청년학생의 지위, 역할, 특성을 살펴보고 학생운동의 동력과 쟁취세력의 경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자주적 학생회'론과 '민주적 학생회'론 등 미묘한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발전 방향의 전망을 밝히기 위해 80년대 후반 동대학생회노선 논쟁의 성과와 한계들을 점검하기로 한다.

또한 현재 학생회의 주체적 상황을 이해하고 강화된 학생회 전망을 위해 학생회 공간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부문 계열조직들—학자투, 학회, 선전, 문화—의 상황을 점검하기로 한다.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물론 이는 89년의 학생운동이 목표포함 성과물들을 획득하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그 실패가 하나의 위기로 전락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글심는 차례
1. 문제는 다시 학생회로
 2. 학생회 노선의 역사(84~86년 2학기)
 3. 학생회 노선의 역사(87~90 현재)
 4. 회조직 골간체계 점검
 5. 정치투쟁과 학자투의 문제
 6. 학회건설과 선전·문화계열
 7. 학생회 활동가의 품성과 자세
 8. 총평—정리

예민한 김수영으로인하여 그들의 눈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반의 투쟁과 정치적 사회적 사조들을 이해하려 애쓰게 되고 나아가 그들이 이후 정선노동자나 이데올로기 계층으로서 편입되기 위해서도 부여받고 있는 상대적으로 객관적 입장에서 사회, 역사를 고찰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지적인 개방성, 또한 행동으로의 전화가 용이한 세대적 특성에 의해 정치투쟁에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청년학생과 정치투쟁 그리고 학생회

학생운동의 정치투쟁을 자신

기획점검 잇따른 재판거부와 사법부의 양심 '차라리 희극' 돼버린 재판

김근태씨 이어 임종석·양연수씨등 거부

“권력의 탄압수단으로 사용돼온 국가보안법·집시법이 본인의 공소장에 그대로 나열돼 있음을 보고 차라리 하나의 희극으로 보겠습니다. 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더이상 다툴 의욕도, 투지도 없으므로 원범에 보강된 재판판을 권리를 포기합니다.”

청년연 창립선언문제작 및 5·9노태우퇴진시위, 배후조종의 혐의로 지난 5월13일 제2주도에서 연행, 구속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김근태 전민권투쟁위원장은 첫 재판에서 이같이 진술하고 재판을 거부했다. 이날 김근태씨가 재판을 거부하고 퇴장한 가운데 검찰은 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구형했다. 김근태씨는 재판거부이유에서 자신의 구속은 지배세력의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며 정치집권권력학을 위한 민족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임을 밝혔다.

현재 서울구치소에는 옥중투쟁위원회(공동대표: 김근태, 단병호·양연수)가 결성되어 1백 20여명의 양심수와 일반계좌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옥중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근태씨의 재판거부를 계기로 지난 8월초 양심수들은 재판거부를 결의했다고 전해진다.

임종석 전대협 전의장, 양연수 전민권의장도 재판을 거부했고 재판을 기다리는 다수의 양심수들도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다.

과거 5공치하에서는 재판이라는 것이 고문이나 조악한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무죄의 공간으로 이용됐으나 지금은 그것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럼속에서 조가감을 김일성정권이 '이적단체 찬양공무죄'로 화기를 구속시키고 소련고등학교 교사로 쓰이는 께이 김근태씨도 마찬가지이다. 이치럼 현정권이 법정에 오른 김근태씨를 재판거부하고 있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5공보다 2배이상인 1천3백명의 양심수와 일반계좌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옥중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근태씨의 재판거부를 계기로 지난 8월초 양심수들은 재판거부를 결의했다고 전해진다.

김근태씨 부인이며 서울민권투쟁위원인 양연수씨는 “남편이 구속되고 경찰·검찰조사와 정에서 특별권을 행사하자 구속사유였던 집시법보다 국가보안법을 댔습니다”고 밝히며 “사법부가 상식에 맞지 않는 형

87년 6월 대투쟁과 7·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남한사회의 변혁운동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과감하고 선도적인 정치투쟁으로 정세를 역전시키고 사회적 대변혁의 순간들을 창출해 온 학생운동은 학생회를 중심으로 대중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여 구국의 강철대오 전대혈을 결성하기에 이르렀고 90년도는 백만학도의 실재적 대표성을 갖는 전총연 건설 계획까지 갖기에 이르렀었다.

한편 생산과 변혁의 주체인 기층민중들은 고통과 억압의 사슬을 끊고 한걸음, 한걸음씩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더니 마침내 한국전쟁후 최대의 노동자 조직인 전노협을 결성하였고, 천만농민의 첫 전총연을 결성하였다.

그러나 90년 친미파소속내연합을 비롯한 노태우정권은 선배부사들의 피의 댓가로 쟁취한 민족민주세력의 조직들을 각개격파하기 시작하더니 우리 학교에서도 '반미구국전선'이라는 조직사건을 만들어 학생회 강화에 헌신했던 여러 학우들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기층민중운동은 성장해 나가는데 비해 학생운동은 오히려 발전에 대한 계획들이 지체되거나 퇴보하기 시작했다. 우리학교의 경우 역시 89년부터는 학우들의 사상적 의식이 그 지위에 비해 발전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지도력과 대표성도 보강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학생회의 지도력 회복이 급선무 투쟁단절...일상사업 부재가 원인 민주적 의사수렴 구조 확대해야

재생산하는 기능을 담보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발달해 갈수록 학생들은 점차로 취업률의 저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엘리트로서의 특권이 사라지고 학생들은 재학중에 있어서나 졸업후에 있어서나 특권자본에 의해 억압받고 착취받는 넓은 의미의 프롤레타리아적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선도적으로 전체변혁운동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했던 청년학생의 특성을 설명하기에 충분치 않다. 프롤레타리아적 억압받고 쟁취하는 계급이지만 일관성과 끈기가 부족하고 노동자의 당파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청년학생은 무의식적으로 정치투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학생이라는 존재는 사교나 지식 습득으로부터 기인하는 의식성을 바탕으로 다시말해 사회에 대한 그들의 폭넓은 관심과

경제적 요구를 수미일관하게 관찰하려는 과정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치의식의 선형에 입각하여 가능해진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대학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와 피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가 항시적으로 격돌하게 되는 장이며 피지배계급 이데올로기의 광범한 유포와 청년학생들의 지지력 획득 과정은 지배계급의 일본조물인 대항이 오히려 지배계급에 대한 발단의 장으로 뒀을 의미한다.

투쟁의 조직적 무기가 학생회로 되어야 하는 것은 학생회가 전체대중을 포괄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중의 식화, 조직화를 위한 주요한 고령요인인 학년별, 전공별 특수성을 포괄하는 의식화·조직화 학생회조직이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어떻게 광범위한 일상구조를 학생회의 조직적 강화를 위해 복무케하

제 28 회 학술상 논문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무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알찬 수확을 거둬온 본 社 學術賞이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 많은 동국인이 응모하여 동국의学风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人文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社會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自然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50매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본 社에서 위촉하며 임상학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10월 8일~12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발표: 10월 24일 本紙 紙上

동대신문사

GoldStar

FA
TOTAL FACTORY AUTOMATION

공정자동화로 탈바꿈하십시오.

企業変身

럭키금성

이제 『국제화시대』라는 말은 일상용어에 지나지 않습니다.

담배시장, 보험시장도 개방되었죠. 외국용역사는 단말기를 통해 정보를 판매하고 돈을 벌아가는 시대— 어느날, 귀사가 생산하는 제품도 시장개방이 되었을 때 당당히 경쟁할 수 있으니까요? 그들의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제 공정자동화는 기업경쟁에 필수요건입니다.

공정자동화로 경쟁력 강화를 통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점자리의 비상을 함께 하십시오.

금성이 협력하겠습니다.

산전부문의 4개 회사들은 유기적인 기술체제를 통해 단기기자동화부터 전 생산라인의 자동화까지 완벽한 공정자동화를 구축해 드립니다.

● 금성전 자동화(전부) 774-1522-24 ● 금성전 FA 7기자동화 726-1331-93
● 금성전 전자제어 787-5876-78 ● 금성전 FA 7기자동화 726-1520-1530

금성 産電部門

● 金星産電 ● 金星計電
● 金星機電 ● 金星아니텔

잇따른 부양책불구 오히려 '위기'

경제분석 대중의 경제생활과 인플레이

인간의 삶과 직결된 문제로써의 경제생활은 여러가지 물질의 생산과 소비, 교환, 분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주택, 임금, 물가의 문제들은 특히 노동대중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일 것이다. 최근에는 다른 질박하고 다급한 문제가 가려 있지만, 주택문제만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의 실인적 폭등은 이 땅의 집없는 양심들을 비판과 자살로 내몰았다. 물가 역시 정부가 발표한 지수에서 면피로 정부주니 물가를 폭등시키며 서민의 호주머니를 비워내고 있다. 그런가하면 임금은 물가의 상승을 따라잡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실질임금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대중이 경제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증권시장의 계속적인 하락은 언젠경 경봉구조를 발생시키며 사회문제화되고있고, 증대에서 이라크와 미국의 대립은 기름값을 급격히 올려놓으면서 경기를 흔들고 있다.

또한 80년말부터 혼란리기 시작한 무역수지는 90년말까지 적자행진을 계속하면서 무역수지의 흑자의 보대를 허물고 있다. 대외통상문제와 수입개방

요의 확대와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 건설업의 호황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수산업, 광업의 계속된 후퇴와 제조업과 수출산업의 축소 반면에 수입수요의 팽창과 서비스산업 부분의 호황이 최근 한국경제의 한 특징으로 주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는 그동안 몇 차례에 걸친 경기부양대책에도 불구하고 나아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경제차별에 골몰하고 있다. 이른바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다. 특히 행정부는 자본주의의 통화, 금융, 세제, 환율 등의 획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자본가단체의 압력에 대중의 생

순환·구조적위기 노동자에게 전가 경제구조의 종속적 재편 두드러져

활조건을 뒷전에 밀어두고 사망발령으로 그를 포장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제위기에 걸려있는 이른바 경기부양대책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경기부양책이 아무리 휘황하고 그럴듯한 인사로 포장되어있더라도, 본질은 특점자본의 부양에 있다. 따라서 그것은

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생필품 가격, 수입료, 비스비 등등의 공공적 성격 가진 각종비용과 공산품 가격이 벌써 큰 폭으로 인상되거나 인상을 기다리고 있고 특히 유가의 인상은 이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명목으로 합리화하며 썩어진 91년의 예산의 확대편성 역시 예외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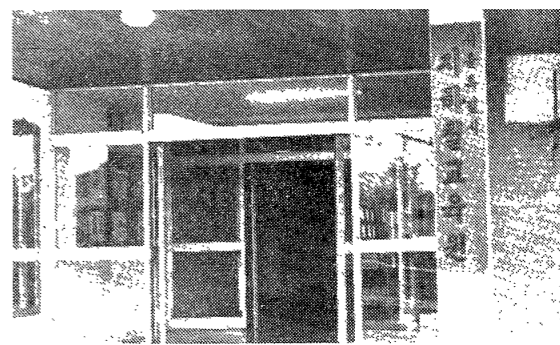
이러한 한국경제의 순환적이고 구조적인 위기 속에서 정권과 자본은 경쟁력의 약화와 이윤율의 저하를 인플레이션정책으로 발족하면서 임금의 억제, 비뚤한 노동통제전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물가의 상승과 인플레이에 의한 실질임금의 하락과 노동운동탄압에 저항하는 노동대중에 대하여 정권과 자본은 이태물로기적, 적절적 선전과 탄압을 한층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근자의 한국경제의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는 경제구조의 종속적 재편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수출상품의 대량생산체로 편성되어있는 한국경제는 최근의 수출조건의 약화와 수입의 급등에서 보는 것처럼 심한 고통을 겪어내고 있다. 한편 이른바 개방화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온 농축수산업부문의 침탈과 자본, 금융, 건설업에까지 이르고 있는 자유화는 우리 경제의 자주적이거나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왜곡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종속적인 재편에 대하여 어느 때보다도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혁기
(민족민주운동연구소 상임 연구실장)

해방역에 닿을때까지...

지하철 노조 탐방



공사측, 노조원 분열책동 찾아 대자보 부착등 일상투쟁 벌일터

비가 추적이며 내리는 지날 일 기자는 군자동에 있는 서울지하철노조조합을 찾았다. 기지역 경비실에서 신분을 확인한후 역내로 들어서니 복잡하게 얽힌 선로들이나 많은 노동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기자는 이들중 한 노동자의 도움으로 쉽게 길안내를 받을 수 있었다. 노조사무실을 찾아가는 도중 그는 현재의 건물은 기지역 지하철공사로 육원이라 일러주었다.

"진회회사장이라는 높은 사람도 있다. 위에 산사함을 관속에서 집어넣고 장례를 치를 수 있잖아?" 옆에서 관는 기자에게 물었다는 듯 큰 소리로 말하는 그를 따라 들어간곳은 2층짜리의 낮은 건물이었다.

"모두 풀러냈으니 안심하라"며 말문을 연 홍순영위원장 "연행되었던 노조간부들이 조사과정에서 노조가 전동차내에 부착한 대자보에 관해 집중주공당했다는 것으로 마무리 공사측의 고소·고발이 있었던 겁니다"며 답답하게 말했다.

지하철노조는 작년 3·16파업 투쟁때 구속된 정운광노조위원장이 올해2월 해고된 직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 현재 해고효력을 다루고 있는 한편 공사측에 대해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과 함께 작년 11월부터 지금껏 11차례의 단교교섭요청을 한 상태이다.

그러나 공사측에서 보인 태도는 일반노조원들을 회유하며 노조와 노조원을 분열시키는 책동뿐이었다.

"지하철이 서울시민에게 미



방화동 마을 주민들이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평화행진을 하고 있다.

재개발지역 방화동을 찾아

'세입자도 인간이다. 생존권 보장하라'
'기수용시설 보장하라'
'선임주 후회기'
점으로 보기에 어느만큼과 다를바 없었지만 담벼락 여기저기에 써있는 빨간색의 선명한 의식에서부터 방화동주민들은 이미 철거민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철거야 10월에 한다요는 하지만 이 내일이랑도 당장 들어야하는 날에는 그만 아닙니까? 우리가 뭐 크게 바라는게 있냐. 철거할때 하더라도 기수용건물 하나 지어달라는 것하고, 아파트를 다 지으면 세입자들도 입주할 기회를 좀 넓혀달라는 것 뿐입니다. 그것

"쓸모없는 입주권보다 수용건물필요"

대부분 중상층 이상돼야 입주가능 공공임대주택 적정임대로 제도화 시급

이 현란식을 가진 뒤 '선임주 후회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마을을 돌면서 평화행진을 하는 등 철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철거 마을주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28일에는 대책본부 사무실을 마련하려 하자 용역회사 철거민 20명이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하려해 주민2백여명이 몸싸움을 벌여 사무실을 지킬 일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전부터는 지난6월 서경대에서 반출된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담(이하 주거연담)'과 자주 연락을 하며 연담에 싸워 나가고 있다. '주거연담'은 과거 철거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철거민들의 주거대책사업을 벌여나가고 있다.

방화동 세입자 대책본부 위원장 채수복씨는 바로 이 주거연담사무실에 자주들러 도움을 받고 있다. 택시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바쁜중에서도 위원장직을 맡은 채씨는 "회사에서 3년째 해오는 노동조합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철거민 투쟁할 각오입니다"라며 의지를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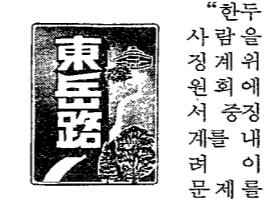
또한 주거연담위원장 김진홍씨는 "지금상황에서 딱지(입주권)같은것은 이제 철거민들에게 더이상 필요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쓸모없는 딱지 하나 보다는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왔던 철거민들이 기수용건물 하나라도 더 건설할 때입니다"라며 또한 "정실은 공공영유, 혹은 장기임대아파트나 소형아파트사업을 확대해야할데도 불구하고 재개발되는 곳을 보면 언제나 중상층 이상이나 어울리는 호화아파트가 대부분인데 철거 주민들의 주택난 해소라는 많은 빛은 개살구가 된 것"이라는 철거민의 심정을 대변한다.

"재개발도 좋고 대규모 택지개발도 좋습니다. 다 좋다고 하는 일일일일, 근데 어찌 날이 갈수록 갈수록 사람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더 가난하게 살아야만 되는 세상이 오는것만 같습니다"라면서 방화동 주민들은 한숨을 짓기도 했다.

품을대로 묶은 토지, 주택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진 않겠지만 제나라 국민이 살집이 없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은 더이상 허락되어서는 안된다.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무주택대중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 소득수준별, 부담능력별로 등급화하는 제도, 임대료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장기저리 상환제도 도입은 정부가 결코 관심을 쓰지 않는 차이나기 불가능한 일 이 되어서도 안된다.

(최윤옥 기자)



"한두 사람을 정계 위원회 해설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책임정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90학년도 입시전형'과 파다 지출로 정주캠퍼스 이명천교무과장등 교무처 소속3인의 파면정적등의 중정계를 직원 정계위원회에서 결정, 재단과 총장에게 회부했다.

이에 대해 정주캠퍼스 직원노조 이강석위원장은 "감사에 쓰여진 자료와 정계정적등의 문제점은 직원의 정계가 내려지기 전에 해명했어야 할 일"이라며 "정계의 목적은 정의구현에 있으므로 학교주체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간담 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전형료 파다지출이 의문시

부당징계

명, 경주 8천5백여명으로 5천여명이나 차이가 난 자료로 감사하여 1·2차 감사가 잘못 됐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정밀 제조사가 실시되기전에 교무과장, 주임, 실무직원등 3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끝난상태였으나 인사 조치를 단행한 근거사유를

공식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지난 6월1일 구성된 직원 정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었으나 정주캠퍼스에서는 강창순사무처장만 참여하였다.

직원의 정계사유가 발생하면 정계대상자의 진술서와 소속부서장의 의견서를 총무처장에게 제출하고 총무처장은 정계조사후 정계위원회의 회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사건주무처장인 정주캠퍼스 교무처장은 의견서를 제출한바 없었으므로 밝혀져 정계를 위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번 정계는 재단의 감사능력을 의심하고 적법절차를 갖추지않았다는 것이 중립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은 사후조치를 단행하고 있지 않다.

부당징계에 이은 부당징계 등 몇 주간의 계속적인 파행행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차옥경 기자)

"조금만 더 쳐다오 우리의 펜대가 시퍼런 칼날로 설때까지"

대학언론인 6명구속·13명입건·56명수배... (8월18일 현재)

대학언론관련 조사대상학교

건국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세종대, 외대, 한양대, 상명여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단국대, 숙명여대, 숭실대, 중앙대, 고려대, 국민대, 국제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한신대...

이 많은 대학, 대학언론인을 수사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은

과연 이 사회에서 진정한 불순한 소수 무리가 누구인지를 민자당정권 그들 스스로 자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울의 기사, 한명의 기자가 그들의 목표는 아닙니다.

통일할 수 없고, 민주할 수 없는 그들이 이 땅 40만 청년학생의 눈과 귀를 던져 자려는 하나의 시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언론은 단일이 가해될수록 우리의 펜대를 더욱 시퍼런 칼날로 갈아주는 40만 청년학생이 있기에, 우리를 잃어내는, 사천만을 잃어내는 국가보안법, 반통일정책, 의예와 그 도리배가 이 땅에서 철거되는 날까지 더더욱 시퍼런 펜대를 휘둘러 것입니다.

서울지역대학언론협의회 건설준비위원회

대학언론협의회는 대학신문사·대학영자신문사·교직원집위원회·대학방송국의 연합협의 기구입니다.

예술이란 미명아래 지배계급논리 감추려

‘포스트 모더니즘’을 비판한다

사회현실을 심미적으로 향상시키는 예술방법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적어도 우리나라 사회구조 내에서 활용되는 부적당한 예술이 아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리얼리즘과 같은 개념은 자기 다른 미학에 근거하여 세계를 예술로 전유하는 원리이다.

역사 전개 과정 안에서 어느 사회라도 과학적으로 그 구조와 본질을 파악할 수 있고 따라서 한 예술유파가 사회현실을 올바르게 향상시켰는지 여부도 가려낼 수 있는 것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에 앞서 나타났던 모더니즘의 한계를 극복하는 물론 사회가 ‘대중에게 사회’, ‘정보사회’, ‘전자사회’로 변화함으로써 일보레트 베르의 주장처럼 ‘포스트 모더니즘은... 새로운 이데올로기 이상의 것이라면 무엇으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기록하려는 그리고 저 지도(企圖)의 율박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하나의 탐색운동, 하나의 시도로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유파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 개념과 의미의 다양함만큼이나 적지 않은 허점을 안고 있다.

‘나에 중심한 이성주의를 기초로 하여 봉건 지배 질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사회구조에 적합한 지배질서인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따른 새로운 역할과 책임성을 갖게 된 것이 모더니즘의 변화과정이며 여기서 비롯된 모더니즘 역사 처음에는 봉건질서에 반하는 이성의 깃발을 앞세웠으나 자

본주의 사회가 형성되자 점차 ‘현상 너머의 본질’을 추구하면서 세계 파괴적이고 저항적으로 변화하였으므로 자기 모순에 다다랐다는 이야기이다.

즉 모더니즘은 자본주의 경제의 상업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력을 갖지 못하고 확산될 때에 놓여있는 대중문화에 반하는 고급문화로 좁아지는 편협성을 낳는 한편 예술을 통해 사회를 계도한다는 논리 아래 현실과 유리되는 전위 예술을 낳았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비판은 많은 긍정성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전위의 일상적인’과 대중적인 확산이라는 방향으로 기울었을 뿐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본질에서 파생하는 갖가지 모순을 분명하게 형성

50~60년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이 유파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크게 두가지로 대별되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계몽주의의 자본가 지배사회가 용역 중심의 전문가 집단지배사회로 뒤바뀌면서 경제적 모순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후기산업사회가 되었다는 다니엘 벨 등의 입장이다.

둘째로 오히려 자본주의의 모순이 심화된 후반 자본주의로 변화하였다는 프래드릭 제임슨의 입장이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의 예술형상의 방향도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후기 구조주의 유파로 모든 이론과 사회학 등이 허구적인 절대성을 강조

개하여 세계의 상호 화해의 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앞서도 밝혔지만 우리사회보다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일찍이 유파가 발생한 서구사회에서도 너무나 다의적 의미를

중적인 사회에는 질로 다양한 삶의 모습이 다양한 층의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무작정 다양성의 형성이 아니라 계급적 시각에 따라 체계화되고 하나의 중심으로 전회화 되어야 하

현실의 예술적 형상은 비판적 의식 지녀야

맞는다.

대중화 되어 문화산업이라고 불리우는 것에서부터 후기구조주의와 같은 유파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지칭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아이들이 이 예술 유파가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능하더라도 과학적인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인가는 분명하다.

비판할 점을 몇가지로 정리한다면 첫째로, 우리사회로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본질적으로 계급주의 나라라는 의해 것들로서 자본을 움켜 쥔 자본가 지배하는 계급사회임에는 변함없이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본질을 은폐시키는데 쓰여져 지배이데올로기를 펼쳐줄 것이다.

둘째로, 사람과 그 관계의

것이다.

셋째로, 이성해체나 비판이론적 입장에서처럼 세계의 비폭력적 의식소통을 통한 화해라는 논리야말로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극복해야만 현실과 결합하여 진정한 사회개도가 이루어 진다는 사실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총체 파악의 어려움이 곧 비판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 논리가 간파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예술적 형상은 단순한 반영에 그쳐서도 아니란 것만 아니라 이를 통해 비판의식 및 정서를 거저게 한다는 사실이다.

이미 20~30년대 우리 문단에서 모더니즘을 예속시켜 예술자상주의와 퇴폐적 감상주의로 흐르려 했던 것처럼 지금 상황에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입은 사회현실과 동떨어진 채 예술자상주의의 한 지지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희운 記者)

달하나 수강에 통일의 조건



文明大 (예술대학교·미술학)



무상(無常)이라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나게 느껴진 때가 없다.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중국의 죽(竹)의 장막이 전혀 마음대로 넘나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 우리 선진문화가 북경을 뒤덮고 태극기까지 휘날리게 된 마당이다. 절대로 기대할 수 없던 소련의 철의 장막도 페스트로이카로 하루아침에 허물어졌고 연이어 동구가 연쇄적으로 자유의 물결로 뒤덮이게 되었으며 나아가 동서국이 통일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꿈만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느끼게 되었다. 분단 40년만에 남북통일이 서울에서 개최되는 꿈같은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조바주마하고 아슬아슬한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 드디어 남북한의 최고위인사들이 만났던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아니지만 이면에도 한시를 놓게 되었다는 기쁨이 드는 것은 나만의 느낌이 아닌 것 같다. 머지않아 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것이고 통일의 그날도 어김없이 찾아오리라. 변한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이기 때문에 분단교착의 철조망은 반드시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나 어떻게 허물어지고 무슨 수로 통일되는가 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와 역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지혜와 역량을 옛 삼국의 통일에서 그 역사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무열왕(武烈王)을

大宗이라 칭하여 화가치민 당고종(唐高宗)은 향사절단을 신라에 보낸다. “나의 부왕(父王)은 위정·이순공같은 현명한 신하를 얻어 서로 ‘心德을 和尙’하여 천하를 통일하였으므로 太宗皇帝라 칭한 수 있지만 너는 작은 나라로서 어찌 감히太宗의 칭호를 사용하였는가, 당장 고쳐라하고 준엄하게 꾸짖고 나왔다. 그러나 신라의 신문대왕은 “우리는 비록 너라는 것이 보다 작을지 모르나 우리도 성신(聖眞)김유신등을 얻어 화합으로 삼국을 통일하였으니太宗이라 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고 당제(唐帝)의 항의를 일축하고 만다.

이런 신라의 당당한 기개가야말로 강대한 당군까지도 물리치고 명실상부하게 통일대국을 수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 보다 전체국가에서조차 통일의 조건은 군신간이나 국민간의 심덕의 화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다.

화합이아말로 시비를 그치게 하고 싸움(戰爭)을 종식시키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부처님도 일찍이 四分律에서 설교한 적이 있다. 그러나 화합도 무턱대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첫째 같은 계율을 지키라. 둘째 의견을 같이 맞추라. 셋째 같은 공양을 똑같이 나누라. 넷째 한 장소에 같이 모여 살라. 다섯째 항상 서로 지체스럽게 말하라. 여섯째 남의 뜻을 존중하려고 부처님은 누구나 강조하셨다.

이러한 여섯가지 화합법 특히 군비통제, 경제평등, 상호존중의 화합정신을 남북통일은 명실상부 화합에 입한다면 통일은 몇 몇하게 이루어 질 것이고 변형하는 통일조국은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남북통일은 聖德까지가 아니라라도 현명한 공복(賢臣)이라는 소리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말을 병들게 하는 일본말

사람에게마다→사람마다
③(보다)(토씨를 아저씨로 잘못 쓰는 경우)
△어린아이를 보고 안연하고 포근하게 들고보다→더
△아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보다→더
△보다 친절하게 보다 깨끗하게보다 친절하게→더 친절하게
△(다름 아니다)
△이것이 곧 그의 삶에다름 아니다→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정책은 ‘빈곤의 평등화’에 다름 아니다
다름 아니다→지나지 않는다
△(속속)
△속속 연설사 노조가 속속 결성되는 것을 보노속속→연말이 지루
△기저 안으로 속속진결했으며
속속→연말이

“예술도 현실에 눈 돌려야”

미술 평론가 윤범모 동문을 만나



시인 ‘제3세계의 미술문화’와 중국을 여행하며 ‘중국대륙의 숨결’이란 사진집을 내고, 도미시절 미국의 인상을 적은 ‘발발체류’란 시집을 발간한 팔방미인이다.

“우리 문화는 대륙중심의 문화인 편입에 예쁘고 있는데, 시야를 넓혀 제3세계의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문화가 생동감있게 살아 있는 문화, 예술로 만들어야 건강한 민족문화가 수립됩니다”라며 불교미술, 한국미술을 하면서 느낀 우리것에 대해 피

미술은 시각의 언어로 방대한 지식필요 개인의식서 탈피 함께하는 예술해야

따가운 여름 햇살을 받으며 찾아간 인사동 아담한 건물에 (가나아트)에는 창간이후 이 집지의 편집주간인 윤범모씨가 열정 아저씨같은 모습으로 ‘뒀 인터뷰할거나 있나’하며 ‘연신 눈가에 웃음을 지었다.

모교 동문이자 미술평론가인 윤범모씨는 제3세계 미술 입문

력한다.

신배로서 동국의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동국대는 너무 보수적입니다. 역사에 비해 자꾸 낙후되어 가고 있는데, 이는 동문들도 문

제가 있고, 교직원, 학생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운동권 미술의 이론적 대비로 평가받고 있는 그에게 순수 미술과 현실참여 미술에 대한 평을 묻자 “정치에 무관심한 것은 순수한 예술이 아닙니다.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예술입니다. 이제껏 예술이 소비지향적이고 대중문화에 수면적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이웃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특히, 통일 문화 미술이 이 시대에 중요함이다”라며 동참할 사람이 드문지 않냐고 말했다. 또 쉽게 뛰어 들 수 없는 미술평론분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미술이란 시각의 언어인데 조형적 산물을 언어로써 설명하기가 힘들고, 미학, 역사 등 방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답하며 학생때부터 즐겨

전이고, 삶이 가식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이 지향하는 등, 출세를 등지고 예술에 몰두해야 참다운 기인”이라며 “사회적 건강함 측면에서의 고집스러움이 필요한데 사회제도에만 맞추어 사는 국화풍 문화가 어렵습니다”라고 했다.

도시 시절에 느낀 미국미술에 대한 불운에 “미국은 복합 인종사회이고 복합 문화라 모든 분야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화나 미술에서 우리가 크게 배울것은 없습니다”하며 우리 것 창조를 다시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미술도에 조언을 부탁하는 말에서 그는 “요즘 예술인들은 많이 약아지고 실리주의적입니다. 사회적 세계에 안주하지 말고, 밀실의 벽을 부수고 민중의 광장으로 나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라며 조언할 처지도 아니라고 겸손하게 말꼬리를 흐리기도 했다.

민중예술의 도화선인 80년도 ‘현실과 발언’의 창립동인이었고 현재 ‘예술의 전당’미술관장을 역임중인 그는 “다른 언론의 인터뷰와는 달리 모교로써와의 인터뷰를 하니 조심스러 운데...”하며 웃는 얼굴에서 전베로씨의 따뜻함을 느꼈다.(淑)

우리글 바로 쓰시다

우리말을 병들게 하는 일본말

사람에게마다→사람마다
③(보다)(토씨를 아저씨로 잘못 쓰는 경우)
△어린아이를 보고 안연하고 포근하게 들고보다→더
△아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보다→더
△보다 친절하게 보다 깨끗하게보다 친절하게→더 친절하게
△(다름 아니다)
△이것이 곧 그의 삶에다름 아니다→지나지 않는다
△사회주의 정책은 ‘빈곤의 평등화’에 다름 아니다
다름 아니다→지나지 않는다
△(속속)
△속속 연설사 노조가 속속 결성되는 것을 보노속속→연말이 지루
△기저 안으로 속속진결했으며
속속→연말이

문화공연

철학과 연극공연

본교 철학과에서는 연극 ‘갈릴레오 갈릴레오’를 오는 6·7일 양일간 학생회관 5층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연영과 실습공연

본교 연극영화학과(2년)에서는 실습공연으로 Neil Simon 작 김태형 연출로 ‘The good doctor’를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본관스튜디오에서 공연한다.

노동자신문 창간 기념 노래한마당 개최

(주)주간노동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노래한마당 “우리, 노동자” 및 제1회 노동자 가요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사업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는 안지현, 정태훈, 예슬림, 전교조 음악분과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인들이 참가한다.

△일시: 9월15일부터 16일.
△장소: 연세대 대강당 및 노천극장.

문화공연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신조들의 삶이 깃든 빛살무늬토기

값비싼 크리스탈의 화려함도 유리창잔의 세련된 디자인도 빛살무늬 속에 담긴 길이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정성과 생활이 깃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신문 광고에도 여러분의 정성과 승감이 담겨져야 합니다. 작은 생각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기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누가: 대한신문광고에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교직원·학생 및 동문등) 무엇을: 대한신문 광고를 보고 “이건 안 좋은데” “오전 좀 고쳤으면” “대형에 실리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 모두 다 어떻게: 제안없이 자유롭게(design 및 copy 포함) 어디로: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34-5(구)배재학교 주시경길 103호 (주)나라기회 광고기획부 연 재: 지금 곧(연재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 타: 공휴일 전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 (TEL : 779-2355-6)

※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V 나라기회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담아내겠습니다.”

신조들의 삶이 깃든 빛살무늬토기

값비싼 크리스탈의 화려함도 유리창잔의 세련된 디자인도 빛살무늬 속에 담긴 길이를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조들의 정성과 생활이 깃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신문 광고에도 여러분의 정성과 승감이 담겨져야 합니다. 작은 생각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는 나라기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누가: 대한신문광고에 관심있는 분이든 누구나(교직원·학생 및 동문등) 무엇을: 대한신문 광고를 보고 “이건 안 좋은데” “오전 좀 고쳤으면” “대형에 실리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 모두 다 어떻게: 제안없이 자유롭게(design 및 copy 포함) 어디로: 100-120 서울시 중구 정동34-5(구)배재학교 주시경길 103호 (주)나라기회 광고기획부 연 재: 지금 곧(연재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 타: 공휴일 전은 직접 문의 바랍니다. (TEL : 779-2355-6)

※ 의견을 보내주시는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V 나라기회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

빛살 생명의 가득 담긴 유해물의 표

제 3 판 발매 중

읽을 것 못하는 새벽
흔적을 그리고
벌어서 보니
발도 없는 밤
호호로 출다

읽을 것 못하는 새벽 속에서

문득 만나 빌붙을 일주에 하는 풍자처럼 유해물의 시선은 비배 뒤러는 우리 삶을 조실하게 뒤덮어본다 한다. 늘 부딪치는 하루하루의 삶이지만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소중한 의미들을 실성하고 생명의 언어로 고집하는 유해물의 시선, 그 시선을 담은 ‘눈을 감으면 바깥보다 눈부시다’는 삶을 사랑하는 방법을 소리없이 깨닫게 해줄 것이다.

● 값 2,300원

진신출판사
720-5990-1

V 나라기회

도서출판

□「정치경제학입문 1 - 자본주의」 니카틴 지음, 전호관 옮김, 동녘 퍼블리싱

정치경제학을 일반 독자들이 쉽고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요약한 입문서이다. 이 책은 정치경제학 입문서들이 범하기 쉬운 지나친 단순화와 추상화를 피하면서 정치경제학의 핵심적인 개념과 법칙들을 풍부한 사례들을 통해 정리하고 있다. (210쪽, 값 3,000원)

□「한국현대인문사」 송헌조 지음, 삼민사 퍼블리싱

우리나라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현대사 연구에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필자가 해방 이후부터의 한국언론의 발자취를 간결한 문체로 정리한 것이다. (256쪽, 값 3,600원)

□「한국사회운동사」 조현연 지음, 진신출판사

80년대의 사회운동사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이러한 물음들에 대한 해답과 그에 기초한 실천적 행위의 근거는 80년대 사회운동사에 대한 올바른 분석에서 주어진다. 분석의 틀에서 운동사 연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하였다. (413쪽, 값 6,000원)

□「교육, 이대로 둘 것인가? 중앙일보 특별취재팀 엮음, 천지 퍼블리싱

89년 9월부터 90년 4월까지 8개월간 연재되었던 교육시리즈를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교육제도와 정책, 교원지위와 복지, 교육행정과 사학, 학교육과 육성회 등등 위기상황에 처한 교육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285쪽, 값 3,800원)

□「지구를 파괴하는 범죄자들」 이마기사 지음, 푸른산 퍼블리싱

공해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이 분야의 책은 많지 않다. 이 책은 본문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는 전부 주를 달아 일반 독자들이 르포나 소설을 읽듯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공해·환경문제를 쉽게 풀어하고 있다. (194쪽, 값 3,200원)

문화공연

“우리마당 9월문화교실” —우리마당 주최

우리마당에서는 9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문화교실을 연다.

우리마당에서는 9월7일부터 10월13일까지 문화교실을 연다.

1. 탈춤교실: 9월7일~10월5일(매주 수) —탈춤 기본사위 및 민족문화 이론

2. 풍물교실: 9월10일~10월8일(매주 월·금) —풍물 기본장단 및 민족문화 이론

3. 단소교실: 9월10일~10월8일(매주 월·금) —단소 기본 연주법 및 민요반주

4. 판소리교실: 9월11일~10월13일(매주 화·토) —판소리의 장단 및 민가·흥가 일부

△참가비: 2만원(입회비, 교재, 악기비)

△연락처 문의처: 우리마당 313-7169

사립학교법 인사권강화 변수 작용 교수직선 총장선거 '예측 불허'

교수회칙 개정 위법논란... 선거무효화 우려

직원인사와 교수채용과 관련, 노조 학생들의 재단총장직선요구가 확산되는 가운데 교수회에서 결정된 총장선거가 무효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노조가 재단총장직선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총장선거 시기와 방법이 남겨놓은 시적 취약점이 선거주체의 소극적인 모습이 그것이다. 사실 교수회·노조·학생등 학원의 각 주체들은 2학기 들어 아직껏 총장선거와 관련한 회동조차 가진 바 없다.

이런 총장선거를 앞두고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종단과 재단 이사회의 권한과 재단총장직선제에 대한 의의가 있는 것인데, 이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도 맞는 재단 권한임을 과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주체가 돌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재단총장직선제를 지지하는 교수회와 학생회는 재단총장직선제에 반대하는 노조와 학생회를 견제하고 있다. 재단총장직선제에 반대하는 노조와 학생회는 재단총장직선제에 반대하는 노조와 학생회를 견제하고 있다.

총장선거는 합의와 상식에 근거한 합법적 형태로 전개되어야 한다. 지난날 21일 교수회



양삼수에게 한 버릇 이제 어머니에게까지... 지난날 30일 서울구치소앞에서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김봉준(경양4)군의 어머니가 욕설을 퍼붓는 교도관에게 항의하고 있다. (글·사진=김영란기자)

총학 복지 장학금 52명 학복위 수익금으로 25만원씩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는 김성철(인철·3)군을 비롯한 52명의 제3기 총학생회 학생을 선발,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다.

학복위수익금으로 지급되는 이번 장학금수익금은 오늘(5일) 오전 11시 명진관(A 101)에서 열린다. 한편 장학금을 받는 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정철(인도철학과4), 송승현(불교학과1), 김희순(국문학과3), 김학민(독어독문학과3), 백만기(일어일본학과3), 양경철(사학과3), 장용일(철학과3), 서창수(국문윤리학과3), 유영선(물리학과2), 김주수(통계학과3), 최규동(화학과3), 김준태(정보관리학과2), 원형운(회계학과3), 함영삼(무역학과3), 한계원(경제학과4), 김민석(경영학과2), 김준식(경영학과4), 최남(행정학과3), 김영철(사회학과3), 박정호(경찰행정학과3), 김규백(법학과3), 정진수(농생물학과1), 김도형(농경제학과4), 이은영(입학과2), 우동구(농학과1), 장동민(미술학과3), 양윤호(연극영화학과2), 이상조(건축공학과3), 박기철(전자계산학과4), 정성문(화학공학과4), 김광용(산업공학과2), 황순원(전기공학과2), 홍정준(토목공학과1), 장인숙(식품공학과1), 전기환(전자공학과3), 임경식(전자계산학과2), 손영규(국어교육학과4), 유선희(수학교육학과3), 김희라(교육학과3), 김경진(간호교육학과3), 두주연(지리교육학과3), 최중성(역사교육학과1), 임두원(2부 경제학과2), 정성호(2부 산업공학과4), 박노태(2부 전자계산학과4), 유선희(수학교육학과3), 홍현기(2부 회계학과2), 박정현(2부 경영학과2), 모재성(2부 무역학과1), 김남수(2부 영문학과4), 장남(2부 경제학과1), 최은정(2부 영문학과2), 이종민(2부 회계학과2)

이들 사용자별로 살펴보면 학생 6만7천9백93명, 교직원 2천1백47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실별 사용자수를 보면 일반대출 1만6백58명, 불교자료실 5천7백20명, 참고간실 3만2천2백40명, 과제도서실 6만7천7백30명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별로는 문과대가 1만8백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범대 1만3백91명, 경영대 7천8백99명, 공과대 7천3백89명의 순이었다.

도서대출량 매년 감소 서울 7만6천여권, 경주 3만6천여권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의 1학기 도서대출량이 지난해 1학기 7만6천5백40권보다 크게 감소된 7만1천4백40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용자별로 살펴보면 학생 6만7천9백93명, 교직원 2천1백47명으로 집계됐다. 자료실별 사용자수를 보면 일반대출 1만6백58명, 불교자료실 5천7백20명, 참고간실 3만2천2백40명, 과제도서실 6만7천7백30명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별로는 문과대가 1만8백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범대 1만3백91명, 경영대 7천8백99명, 공과대 7천3백89명의 순이었다.

'하반기 총학 진군기간' 선포 10일까지 학자투방향등 총노선 결의다져

제22대 총학생회는 지난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1주일간을 하반기 총학 진군기간으로 정해놓고 2학기 학자투방향, 총노선결의등 전반적인 학생회일정에 대한 결의를 다진다.

지난4일 오후5시 학림관(소강당)에서는 학생대표회의가 열려 회계계정안, 민중선거제도안, 정치투쟁 총노선결의 등이 있었다.

오늘(5일) 오후2시에는 '양심수적방과 민자당 장기집권분쇄를 위한 하반기 투쟁선포식'이 도서관에서 열렸다.

오늘 선포식에서는 범민족대회행가, 하반기 정부에 있어 장기집권분쇄와 민자당 장기집권분쇄를 위한 하반기 투쟁선포식의 순으로 진행됐다.

총학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1학기 통산감사를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문과대를 시작으로 예산·사업감사로 나뉘어 실시한다.

이런 감사일정은 총학등 4개 기구가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구들은 아직 미정인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출입관리부 △12일=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공과대.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세운다.

대총, 학생회 통산감사 실시 각 단대·총학등 예산·사업부문

총학위원회는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1학기 통산감사를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문과대

를 시작으로 예산·사업감사로 나뉘어 실시한다.

이런 감사일정은 총학등 4개 기구가 확정된 상태이며 나머지 기구들은 아직 미정인데 그 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출입관리부 △12일=총학생회, 동아리연합회, 공과대.

학생기만, 파행운영에 꺼덕않는 자판기처럼 불감증(?)인듯...

본 회전문대 측은... ○...지금 서울구치소에서 진행중인 사태를 보면 파소의 광풍이 다시 불어닥쳐 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

를 따라 학생대중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다는 불평이 있는데... ○...지금 평택에서 미국의 일괄 두개는 작파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는 옛말과 함께 '동학의 현실이 투사를 길러낸다'는 새로운 유행어가 퍼지고 있는데...

○...지금 평택에서 미국의 일괄 두개는 작파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니, 테이프도 목이 쉽니까?

물론입니다. 녹음된 것을 원음 그대로 재생하지 못한다면 '테이프가 목이 쉬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의 경우와 달리, 테이프는 한번 목이 쉬어버리면 유감스럽게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테이프가 목이 쉬는 것은 첫째, 테이프 표면에 입하는 자성체입자가 균일치 않아 처음부터 소리가 고르지 않은 경우 둘째, 온도나 습도, 사용횟수로 인해 음색이 변형되는 경우 셋째, 메커니즘(Mechanism)이 정밀하지 않아 테이프가 영커거나 잡음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테이프를 골라 쓰시면 별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스마트'는 첨단기술과 엄격한 품질관리를 생산되는 '목이 쉬지않는' 좋은 테이프이므로 음악이나 회화를 언제나 원음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SMART

SUNKYONG

